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을 위한 동료장학의 의미*

-부산 Y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 종 모** · 남 지 영***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을 위한 동료장학의 효과와 동인을 한 초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Y초등학교 담임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명의 교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첫째, Y초등학교의 동료장학에 의한 수업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다. 둘째, 동료장학의 효과는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 개선과 동료 교사들 간의 관계 증진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셋째, 효과적인 동료장학의 동인은 동료장학에 대한 명료한 목표 설정, 철저한 준비, 협의회의 민주적 운영, 교장의 리더십, 그리고 교사들의 긍정적 마인드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음악교육, 융합교육, 동료장학

차 례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1.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의미
 - 2. 장학과 동료장학의 의미
 - 3. Y초등학교의 Art+ Day와 동료장학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자료 처리
- IV.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을 위한 동료장학의 의미
 - 1. 동료장학의 운영
 - 2. 동료장학의 효과
 - 3. 동료장학의 활성화 동인
- 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 연천초등학교 교사

I. 서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목 단위의 수업은 지식의 분리와 고립을 초래하게 하여, 자연과 삶의 실체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반성이 있으며(김정효, 2012; 노상우, 안동순, 2012), 학교 교육의 이런 문제를 융합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김성원 외, 2012; 이경진, 김경자, 2012). 융합교육은 과학과 수학 교육에서 먼저 시작해서 STEM이나 STEAM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교과 수준에서 융합교육의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김정희, 2012; 정미경, 2012). 그리고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권수미, 2012; 남지영, 2013; 조대현, 2013).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실천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교육선도학교¹⁾에 의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교육부는 전국 71개 초·중·고등학교를 예술교육선도학교로 선정하여 음악 수업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 학교들은 음악 교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교과의 지식을 활용하는 음악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방법은 각각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융합교육을 실천할 때, 교내 교사협의체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지식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공동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편협하고 얕을 수밖에 없지만 여럿이 모이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깊이 있는 융합교육 수업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협업하는 동료장학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동료장학은 여러 교사들이 각자의 지식과 교육 능력을 모아 수업을 만드는 것으로 융합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융합교육을 위해 동료장학의 방법을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Y초등학교는 융합교육 수업을 위해 동료장학을 위한 동학년 협의회를 운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장호선(2004, p. 20)은 동료장학을 연구한 자료에서 동료장학을 위한 협의회가 의례적인 모임이 되고 있으며, 교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원보다는 관리와 통제 위주로 교장의 의지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1) 예술교육선도학교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의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2년에 시작되어 201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013년 현재 전국에 7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Y초등학교는 동료장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료장학 덕분에 교사들 스스로 융합교육에 기초한 수업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고, 수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도 좋아졌다.

음악 중심 융합교육을 동료장학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교육적 성과를 얻고 있는 Y초등학교의 실천 사례는 다른 학교에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료장학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동료장학을 통해 음악 중심 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Y초등학교 동료장학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Y초등학교에서 동료장학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동료장학의 성공 요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의미

1) 융합교육

‘융합(融合)’은 오늘날 교육의 핵심 화두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융합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융합인재교육을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융합인재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STEAM 모델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작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에 Arts를 더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가된 A가 지칭하는 것은 음악과 미술뿐만 아니라 언어, 사회, 역사, 체육 등 인문학적 영역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 융합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근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주도 하에 실시되는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은 과학·수학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

기초 교양교육의 측면에서 융합교육을 연구한 홍병선(2011, p. 152)은 “융합교육

의 목표는 총체적 이해와 통섭적 사유능력 함양이다.”라고 하면서 융합은 대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통합하여 생각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기범(2013, p. 253)은 ‘스마트 시대의 융합교육’에서 “융합교육은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의 육성에 목표를 두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도 홍병선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총체적, 통섭적 사유 능력과 유사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대현(2013)은 첫째,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는 점, 둘째,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단절되어 있는 학문 영역 간 통합을 통해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 셋째, 현대 사회가 기대하는 소통과 배려의 마음을 지닌 미래형 인재 양성을 목표한다는 점 등에서 융합인재교육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있다. 반면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효과적인 정책의 부재, 과학영역 외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실시되는 연구의 부재,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융합인재교육의 철학적 배경과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 음악 중심 융합교육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교육과 함께 최근 국제적 요구와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 안팎에서 그 실천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음악 중심 융합교육은 음악적 지식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학습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타 교과와 지식과 개념들을 음악 교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남지영, 2013). 음악 중심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융합교육의 주체 및 대상으로서 음악의 특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종모(2013b)는 음악 교과가 중심이 되는 융합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에서 제시된 내용 중 융합교육적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정리하고, 음악이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융합체임을 가창, 창작, 감상 활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조대현(2013)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는 ‘암묵지(tatic knowledge)’로써의 음악과 융합의 중심이 되는 ‘기존 학문’으로써의 음악의 의미를 각각 밝히고, 음악 중심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자연스러운 음악적 경험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학습자 중심’의 교

육을 강조하면서,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전제조건으로 학습자 주체의 교육, 학습자 개인의 인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배려, 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방법의 개발과 연구 등을 제시하였다.

3)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실천

국내에서 음악 중심 융합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개발된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예술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채현경 외, 2012)”와 “예술교육 선도학교 프로그램 개발 연구(노용 외, 2012)”이다. 이 연구들은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중심의 융합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였다.

이후 2012년 3월 교육부의 예술교육선도학교 사업 운영이 시작되면서 음악 중심 융합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되었다. 2012년 예술교육선도학교에서 개발·적용한 음악 중심 융합교육은 대부분이 주제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한 가지의 주제를 학습하기 위해 음악이 다른 교과와 대등한 통합의 한 영역, 또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많았다.

이에 2013년 예술교육선도학교 사업단에서는 음악교과를 중심에 두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타 교과의 개념 지식이 융합되어 음악의 배경지식이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의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지도 주체와 운영 방법에 따라 융합교육 수업을 교과 내 수업형, 교과 연계 수업형, 교육과정 재구성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양종모, 2013a).

남지영(2013)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의 구체적인 개발 절차와 내용을 제시하고,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수업 내용은 쓰임새를 생각하며 친숙한 악곡 가사의 일부를 변형하고 노래에 어울리는 리듬 반주를 만들어 연주하는 것으로, 융합된 교과는 음악, 실과, 미술이다. 개발·적용한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은 학습자의 음악적 개념과 활동에 대한 이해 향상에 도움을 주고, 음악 수업의 내실화에 기여하며, 유연한 교사 문화 형성과 융통성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학과 동료장학의 의미

1) 장학의 개념

장학(獎學)의 개념은 문자의 의미와 여러 학자의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장학(獎學)의 장(獎)자는 ‘권면하다’, ‘돕다’, ‘칭찬하다’는 뜻이고, 학(學)자는 ‘배우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자의 의미로 보면 장학은 “배움을 장려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에서 장학은 ‘supervision in education(or schools)’이라고 쓰는데, super는 ‘높다’, ‘우수하다’, ‘상위’ 등을 뜻하고 vision은 ‘보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것, 상위자가 가르치는 것, 즉 ‘지도’나 ‘관리’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자는 장려라는 도움을 주는 의미가 강조되고 영어에서는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관리나 지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학을 단지 교육을 장려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할지, 교육행정의 한 부분인 감독·감시로 보아야 할지, 교사의 지도 및 조언으로 보아야 할지, 수업 개선을 위한 지도 방법 제시로 정의되어야 할지 장학의 개념이 간단치 않다(장래찬, 2009, p. 304).

연구자들은 장학을 행정평가 또는 경영과 혼용하기도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교직원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능으로 보고 있으며, 수업장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장래찬, 2009, p. 305에서 재인용). Alfonso, Firth와 Nevile는 장학을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고 학교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교사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학교조직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행위”라고 정의한다(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p. 9에서 재인용). 많은 전문가들은 장학의 궁극적 목적을 학생의 학습 촉진이나 수업의 개선에 두고, 교사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학의 개념은 시대와 장소 또는 어디에다 강조점을 주느냐에 따라 학자마다 약간은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①교사의 교수 행위에 영향을 주고, ②교육과정을 개발·수정·보완하고, ③교육 자료와 학습 환경으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수업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p. 27).

장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수업과 관련된 장학은 수업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자체연수 등으로 구분한다(진동섭 외, 2007, pp. 312-316). 수업장학은 교사들의 수업 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장, 교감, 외부 장학요원, 전문가, 자원인사 등이 주도하는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이 강한 지도·조언 활동이다. 동료장학은 동료교사들 간의 장학이며, 자기장학은 교사 개인이 자신의 전문적

발달을 위하여 스스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활동이다. 그리고 약식장학은 단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학습 순서나 수업 참관을 통하여 교사의 수업 및 학급 경영 활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교사들에게 지도·조언하는 활동이다. 또, 자체연수는 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교직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교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연수 활동이다.

즉, 장학은 교사의 교수 행위에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수정, 보완하고 교육 자료와 학습 환경으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이나 동료, 혹은 여러 전문가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교육 개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료장학의 개념과 특성

동료장학이란 교수 기술 향상과 전문적 성장을 위하여 교사 상호간에 협동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이다(주삼환, 2009, pp. 160-170). 단위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동료장학은 동료 교사 간의 협조를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수업 연구의 과제 해결이나 수업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한다(이윤식, 2007, p. 206). 동료장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동학년이나 동교과 간의 수업 과제의 해결이나 수업 방법의 개선을 위한 수업 연구 활동, 공동 관심사, 공동 과제 및 공동 문제 등이다(이지영, 2010, p. 236). 동료장학은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자율성과 협력성을 근간으로 하여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내용이나 방법이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동료장학의 종류는 수업 연구 중심 동료장학, 협의 중심 동료장학, 그리고 연수 중심 동료장학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업 연구 중심 동료장학은 동료 교사끼리 상호간에 수업을 공개·관찰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수업 연구 과제를 해결하고 수업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거나 팀 티칭을 위해 서로 도와 협력하는 것이다(김정환, 2002, p. 99). 협의 중심 동료장학은 동료교사들 간에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일련의 협의를 통하여 어떤 주제에 관하여 서로 경험, 정보, 아이디어, 도움, 충고, 조언 등을 교환하거나, 서로 공동 과제와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거나, 공동 과업을 추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윤식, 1999, pp. 136-137). 연수 중심 동료장학은 교과별·학년별·교육영역별 소집단 연수, 연구·시범·실험영역연수, 당면 연구과제별 연수 등 각종 자체 연수를 계획·추진·평가함에 있어 공동 연구자로서 서로 경험·정보·아이디어를 교환하며, 때로는 강사를 지

원함으로써 공동으로 협력하는 동료장학을 말한다(이윤식, 1999, pp. 284-285).

동료장학은 교사의 수업에 대한 전문가적 권한을 인정하는 동시에 책임을 갖게 하는 장학으로 분권화나 참여민주주의제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조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관료적 상급자보다는 동료 전문가를 더 신뢰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적절한 장학이다(주삼환, 2009, pp. 170-171).

이렇게 동료장학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장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수업 개선을 위하여 다른 교사의 지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수업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장학 과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같은 학교 내에 있는 동료들로 구성되어 쉽게 만날 수 있고 행정계층에서 오는 위화감이 없이 친근감을 갖는 분위기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어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수업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안우환 외, 2006, p. 107).

동료장학의 개념을 정리하면 첫째, 수업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교사 개인의 발달과 학교 조직의 발달 등 광범위한 목적을 가진다. 둘째, 교사들 간에 자율성과 협동성에 기초로 활동한다. 셋째, 학교의 형편과 교사들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하여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3) 동료장학에 관한 선행연구

동료장학의 실태에 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우선 동료장학이 원래의 의미와 달리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장호선(2004, p. 20)은 그의 연구 “수업연구 중심 동료장학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서 동료장학에 대해 교사들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도가 낮아 조직적인 장학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동료장학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도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동료장학은 자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교사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친밀감이나 긍정적인 유대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의미있는 동료장학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유평수와 최은이(2005, p. 47)는 동료장학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 연구 시간 부족 등으로 장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으며……”라고 해서 학교의 기본 업무가 동료장학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김종현(2009, pp. 56-58)은 동료장학의 실행 과정에서 교사들은 수업 공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수업 과정 분석이 수업 기술의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한다. 또, 정복

이와 신재철(2010, p. 65)은 “수업 장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장학 과정의 관료주의적 장학, 학교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장학, 초등 교사들의 평균주의 교육 활동 등에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수업 장학을 통해 전문적 지원을 받고 싶어 한다.” 신재철은 장학이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지만 교사들이 수업 장학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수업 장학의 방법 관해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수업 장학 풍토는 장학 수요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교사와 장학담당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장학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여 “장학 수요자가 존중받는, 장학 수요자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교사의 참여를 바탕으로 그들이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수업 장학이 실시되어 좀 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자원장학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료장학의 방법에 대해서는 수업 장학을 받고 싶은 대상으로 동학년 교사를 선호하고 있으며, 수업공개 및 참관 형태는 학년 전체 공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동료장학자의 전문가적 자질로는 수업지도 기술, 인성적 자질로는 창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박현숙, 2011). 또한 교사의 수업기술 향상을 수업중심 동료 장학의 가장 큰 효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은 동료장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자신이 수업을 직접 하는 경우라고 보고하고 있다(정혜림, 허병기, 2009, p. 433). 동료장학에서 리더의 요건에 대해서 김민자(1999)는 ‘초등학교 동료장학의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지도기술과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민주적이고 협동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동료교사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동료장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존재하지만 교사들은 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 장학은 장학의 수요자가 존중받는 형태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동료장학은 동학년이나 동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학년 전체가 수업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학자는 수업에 대한 지도 기술과 민주적 의식, 협동적이며 합리적인 지도성을 가져야 함을 말해 준다.

3. Y초등학교의 Art+ Day와 동료장학

1) Art+ Day와 Art+ Day 수업

Y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교육부 창의경영 예술교육선도학교로 선정되어 <창

의·인성이 함께하는 Art+ 행복교실>이라는 주제 아래 ‘교과수업과 함께하는 Art+ 즐거운 교실’, ‘Art+ 창의적 예술체험활동으로 신나는 학교’, ‘울타리 밖 학습 자원과 연계한 Art+ 행복한 세상’의 3가지 연구 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Art+는 음악과 미술 등 예술교과를 중심으로 타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융합된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Art+ Day는 Y초등학교의 첫 번째 연구 과제인 ‘교과수업과 함께하는 Art+ 즐거운 교실’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중 한 가지다. Art+ Day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예술 중심 융합교육 수업을 전일제로 운영하는 날이다. Y초등학교는 Art+ Day 운영을 위해서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예술 중심 융합교육 수업 운영을 위한 4차시 수업시수를 편성하고, 학년별 4차시로 구성된 예술 중심 융합교육 수업을 실시하였다.

Art+ Day에 실시하는 예술 중심 융합교육 수업은 동학년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다. 예술 중심 융합교육 수업의 주제와 활동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은 동료교사들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하여 선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Art+ Day 수업에 적용할 학년별 공통 교수·학습계획안을 만든다.

2013학년도 Art+ Day는 5월 22일(1학기)과 10월 2일(2학기) 1-4교시에 실시하였고, 2학기 Art+ Day 수업은 학부모에게 공개하였다. 1, 2학기 Art+ Day에 운영한 학년별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 수업들은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음악 교과를 중심으로 국어, 수학, 사회, 미술 등 가급적 다양한 교과와의 융합을 시도하여 운영하였다.

<표 1> Art+ Day 학년별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 활동의 예

학년	활동 주제	융합 교과
2	함께하는 무지개 연주	수학+즐거운 생활
	다함께 떠나는 울긋불긋 가을 여행	즐거운 생활+국어
4	여러 가지 악기로 이야기의 느낌을 표현하기	음악+국어
	가을 이야기	음악+미술+국어
6	여러 나라의 노래	음악+미술+사회

Art+ Day는 예술교과와 타교과 및 예술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내·외 간 융합적 접근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해 준다. 또 전일제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나의 예술 중심 융합교육 수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예술

적 체험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실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Art+ Day 수업을 위한 동료장학

Y초등학교의 동료장학은 Art+ Day 수업 준비 및 반성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형태의 동료장학 중 수업을 위한 협의회는 수업자와 1명 이상의 동료교사가 참관자 또는 조력자로서 협의회에 참석하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조언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Y초등학교 동료장학은 협의회에 참여한 교사 모두가 ‘수업자’의 입장에서 협의한다는 특성이 있다. 동학년 교사들은 동학년 협의회를 통해서 다함께 수업을 설계하고, 이 수업을 Art+ Day에 자신의 학급에 적용한다. 즉, 동학년 교사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일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Art+ Day 수업을 위한 동료장학은 동학년 교사 5-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며, 필요시 예술교과전담교사 또는 수석교사가 함께 참여한다. 교사들은 동료장학을 통하여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Art+ Day 수업의 제재, 학습목표, 지도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계획, 자료제작 및 투입 시기 등 수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 과정은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민주적인 협의구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동료장학은 공식적인 협의회 시간뿐만 아니라 동학년 회의시간, 출퇴근길에서 만나는 경우, 점심식사시간 등 비공식적인 시간에도 수시로 이루어진다. Y초등학교 동료장학은 행정적 명령이나 학교 운영 시스템에 의함이 아닌, Art+ Day 수업 준비 과정에서 교사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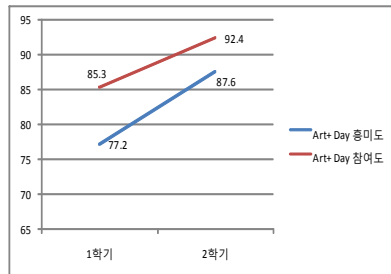
3) Art+ Day 수업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Y초등학교는 Art+ Day 운영 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1-6학년 학생 925명과 학부모 751명이다. 학생 대상 설문조사는 Art+ Day 수업 직후 5교시에 각 교실에서 실시하였고, 학부모 역시 수업 현장에서 바로 응답하거나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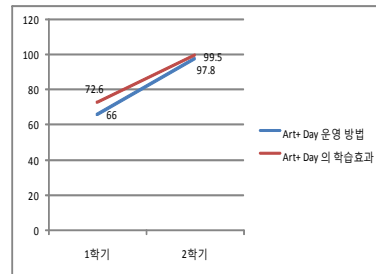
학생용 설문문항은 Art+ Day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참여도, Art+ Day 수업을 통한 교과 이해정도, Art+ Day 수업을 통한 창의·인성 역량 향상정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식 문항 7개와 Art+ Day 수업 후 느낀 점과 개선점을 기술하는 개방형 주관식 문항 2개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용 설문문항은 Art+ Day

수업에 대한 인지도와 자녀 만족도, Art+ Day 수업의 운영방법과 학습효과, Art+ Day 수업을 통한 자녀의 창의·인성 역량 향상정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식 문항 7개와 Art+ Day 수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기술하는 개방형 주관식 문항 1개로 구성되어 있다.

Art+ Day 학생·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설문문항 전체에서 1학기보다 2학기의 만족도가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rt+ Day 수업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와 참여도, Art+ Day 수업의 운영방법과 학습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학생들은 ‘Art+ Day 수업 활동이 즐거웠나요?’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학기 77.2%에서 2학기 87.6%로 증가하였고, ‘Art+ Day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학기 85.3%에서 2학기 92.4%로 증가하였다. 학부모는 ‘Art+ Day 수업을 전일제(1-4교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학기 66%에서 2학기 97.8%로 증가하였고, ‘Art+ Day 수업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학기 72.6%에서 2학기 99.5%로 증가하였다.



<그림 1> Art+ Day 수업에 대한
흥미도 및 참여도(학생)



<그림 2> Art+ Day 수업의
운영방법 및 학습효과(학부모)

‘Art+ Day 수업을 하고나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에 대하여 학생들은 ‘새로운 수업을 해서 즐겁고 흥미롭다.’,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다. 친구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고 이런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함께 음악 만들기를 하니 협동심도 생기고 책임, 배려,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 좋았다.’ 등의 응답을 하였다. Art+ Day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수업이라는 평을 했다. 또 협동심과 책임감, 배려 등의 마음을 향상시

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Art+ Day 수업이 학생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오늘날 교육이 지향하는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음악과 같이 하니 더 실감나고 재미있다.’, ‘음악과 친해지는 경험이 되었다.’, ‘음악만들기를 발표하면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이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수학시간에는 수학만 배우고 국어시간에는 국어만 배우지만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공부를 배울 수 있다.’ 등의 응답에서 학생들은 Art+ Day 수업을 통해 음악 활동에 대하여 친숙함과 즐거움을 느낄 뿐 아니라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추구하는 ‘음악적 지식과 타 교과 지식의 지식이 함께 어우러져 학습자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융합의 과정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동료장학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장학의 주체인 Y초등학교 담임교사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까닭은 첫째, Y초등학교 교사는 동료장학을 통해 만들어진 수업을 자신이 직접 전개하기 때문에 동료장학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둘째, Art+ Day 수업 준비를 위하여 모든 교사가 동료장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연구 대상 현황

	연구방법	연구대상(명)	비고
교사	설문조사	40	담임교사 전원
	면담조사	8	교장, 교감, 교사 6명

동료장학의 효과와 활성화 동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교장, 교감, 교사 6명을 면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교사는 직급, 지도학년, 교육경력, 동료장학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부장교사 3명(담임교사 2, 교과전담교사 1)과 교사 3명(담임교사 2, 교과전담교사 1)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면담조사 대상자의 특성

대상	교육경력	담당학년	동료장학에서 역할	비고
교장	38		· 동학년 협의회 구성 및 지원	
교감	30		· 동학년 협의회 구성 및 지원	
A교사	15	4	· 협의회 진행 및 총괄 · Art+ Day 수업 전개	· 학년부장 · 담임교사
B교사	17	3	· 협의회 진행 및 총괄 · Art+ Day 수업 전개	· 학년부장 · 담임교사
C교사	28	5	· 요청 및 필요시 협의회 참석 및 컨설팅	· 연구부장 · 음악전담교사
D교사	29	1	· Art+ Day 수업안 작성 · Art+ Day 수업 전개	· 담임교사
E교사	13	2	· Art+ Day 수업안 작성 · Art+ Day 수업 전개	· 담임교사 · 연구학교보고서 작성
F교사	10	6	· 요청 및 필요시 협의회 참석 및 컨설팅	· 음악전담교사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 7일~10월 8일에 실시하였다. 학교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뒤, Y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였으며, 회수율은 100%이다.

교사용 설문지는 동료장학의 운영 실태, 효과, 동인, 개선책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운영 실태’ 영역은 Art+ Day 수업 준비를 위한 협의회 참여 인원, 개최 횟수, 출석율, 의사결정 구조, 협의 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10개 문항, ‘효과’ 영역은 수업준비시간, 학생의 반응, 동료 관계, 수업의 질, 수업 역량 등을 묻는 8개 문항, ‘동인’ 영역은 동료장학의 필요성과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묻는 2개 문항, ‘개선책’ 영역은 전문가의 협의회 참여, 동료장학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 등과 관련된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효과’ 영역에서는 동료장학이 교사의 동료 관계와 수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동료장학을 통해 준비하고 실행한 수업에 대한 학생의 반응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주관식 문항을 포함시켰다.

2) 수업 관찰 및 면담조사

Y초등학교의 분위기와 동료장학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두 차례의 Art+ Day 공개 수업을 관찰하였다. 한 학년 전체가 동시에 같은 제재로 수업하는 내용을 반을 옮겨 다니면서 관찰하였다.

제1차 면담조사는 5월 22일 공개 수업 이후에 교장, 교감, 연구부장, 그리고 11명의 부장교사와 진행했으며, 제2차 면담조사는 10월 11일 공개 수업 전후에 8명의 교사와 실시하였다. 교장과 교감은 3회 이상 면담하였으며, 담임교사는 2명 혹은 1명씩 면담하였다. 면담 시간은 1명당 약 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한 횟수는 5회이고, 1회에 약 2-3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조사 내용은 동료장학의 실태, 동료장학 활성화의 동인, 동료장학에 대한 기대 등이다.

3. 자료 처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SPS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동료장학의 운영 실태, 효과, 동인, 교사들이 생각하는 개선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차적으로 전사하고, 주요 진술 내용들을 추출·분류하여 이를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면담조사 내용 역시 전사한 후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동료장학의 효과와 동인을 해석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IV.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을 위한 동료장학의 의미

1. 동료장학의 운영

1) 동학년 협의회의 구성

Y초등학교는 동료장학을 위해 동학년 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동학년 협의회는 일반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 담임들로 구성

한다. 각 학년의 동학년 협의회는 학급수에 따라 1학년 5명, 2학년 5명, 3학년 5명, 4학년 8명, 5학년 7명, 6학년 9명으로 구성된다.

Y초등학교의 교장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동료장학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학년 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는 학교의 운영은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동학년의 교사 구성을 비롯한 업무 분장 결정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 결정을 위해 전년도부터 준비하는데, 그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무위원회에서 학교의 특성과 차년도 학교의 주요 과제 명료화
- ② 학교 전체 업무 분장표 작성과 전체 교사 대상의 설명회 개최
- ③ 교사의 업무 희망 요구서 수합
- ④ 교장, 교감 주관으로 개인 교사별 업무 내용 조율
- ⑤ 최종 업무 분장 발표

이런 절차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그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부여된 업무에 대해 큰 불만이 없다고 하였다.

<표 4> 동학년 협의회 구성원 현황

학년	담임교사 수(명)	평균교육 경력(년)	구성원 배치 및 특성
1학년	5	28	· 저학년 학생의 발달상황과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고경력 교사를 우선 배치
2학년	5	31	
3학년	5	21	· 교육경력(4~30년)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대 교사를 고루 배치 ·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 운영을 위한 교사의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배치(리코더, 오카리나, 첼로 등 꾸준히 음악적 활동을 취미로 갖고 있는 교사를 고루 배치)
4학년	8	24	
5학년	7	20	·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을 위해 각 학년별 음악전담 교사(초등음악교육 석사) 1명, 음악교육 전공교사(학부과정) 1명 이상을 배치
6학년	9	13	

2) 공식·비공식 회합 체제

동료장학을 위한 동학년 협의회는 전체가 모이는 공식 회의와 일부만 수시로 모이는 비공식적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번의 Art+ Day를 준비하기 위해 전체 동학년 교사가 모이는 공식 회의는 약 5-6번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수업 준비를 위한 회합이다.

공식적인 동학년 협의회 이외에 해당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동료장학을 위한 협의회에 대해 D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공식적인 전체 회의보다 2명 혹은 3명이 수시로 모여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 모임이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않지만 수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마구 나옵니다. 점심시간, 방과 후, 집을 오가는 차 속 등에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D교사는 공식적인 만남보다는 비공식적인 만남이 많고, 그 만남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한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수업을 위한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직의 역할과 동료장학의 단계

동료장학은 동학년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동학년 협의회는 동학년의 부장이 리더가 되어 운영되며, 그 내용의 결정 권한은 동학년 전체 교사에게 맡겨져 있다. 동학년 협의회는 공개 수업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수업 내용과 방법을 논의하고 협의한다. 학교 당국은 공개 수업의 일정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수업에 필요한 학습자료 구입과 협의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수업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표 5> 동료장학 단계의 예(6학년 2학기)

일자	협의내용
2013. 7. 2.	▶ Art+ Day 준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2013. 8. 20.	▶ 공개 수업 주제 선정: 여러 교과를 융합하기 위해 여러 교과의 교육과정 분석
2013. 8. 27.	▶ 주제를 고려하여 제제를 선정함 ▶ 음악을 중심으로 사회와 미술교과를 융합하기로 협의함
2013. 9. 2.	▶ 선정된 교과를 중심으로 교재를 연구하여 지도안 작성 ▶ 세계의 민요를 중심으로 사회교과의 세계의 자연/인문환경, 각 나라의 특징을 고려한 꾸미기를 제재로 선정
2013. 9. 24.	▶ 각 학급별로 6개의 민요를 선정함 ▶ 모듈별로 6개 국가 또는 대륙의 인문/자연환경을 조사하도록 과제를 부여함
2013. 10. 1.	▶ Art+ Day 수업 운영(공개 수업)
2013. 10. 8.	▶ 수업 반성회

학교의 공개 수업 일정이 결정되면 동학년 협의회는 공개 수업(Art+ Day)을 위한 내용과 수업 방법을 논의한다. 시작 단계에서는 바로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동료장학의 특징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료교사들 간에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이후에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공개 수업을 할 주제를 선정한다. 주제가 결정되면, 수업 주제와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 학생의 특성(학습능력, 학습태도, 학습의욕 등)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의 방향을 논의한다. 그리고 대체적인 역할을 분담한다. 회의의 진행은 학년부장이 맡고, 지도안 기본 구상과 정리, 관련 지식 내용에 관한 조사, 수업 방법에 대한 기초 조사 등을 맡을 담당자를 결정한다.

수업 내용의 방향에 대한 기본 논의가 끝나면, 지도안 기본 구상을 맡은 교사가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 회의를 갖는다. 이 때 주제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 주제의 문자적 의미와 학문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안을 만든다. 학습 지도안 작성 단계에서 교육과정과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지도안을 작성한다. 수업의 취지 이해, 주제의 주요 개념 이해, 수업 목표 설정, 수업 내용 정립, 동기 유발 방법, 전개 방법, 평가 방법 등의 차례로 논의하여, 학습 지도안(안)을 구성한다. 학습 지도안(안)에 대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최종본을 완성한다. 이후 각 교사들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지도안으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각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 준비를 한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는 역할을 분담해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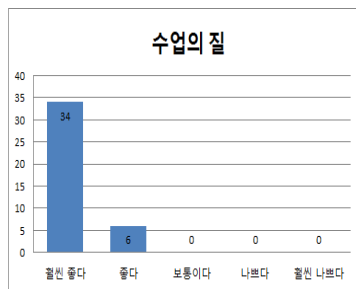
수업 준비 이후에는 수업을 공개한다. Y초등학교 Art+ Day 수업은 학부모나 장학사 등 외부 인사에게 공개된다. 이 때 일반적인 동료장학에서와 같이 교사들은 다른 동료들의 수업을 볼 수 없다. 그들이 동시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사들의 수업은 동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대신 교장과 교감,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수업 후 자신이 한 수업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수업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개략적인 자기평가를 하고 동료교사들과 함께 만든 수업의 장단점을 논의한다. 수업에서 나타난 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체제를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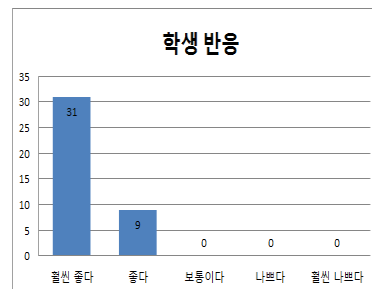
2. 동료장학의 효과

1) 융합교육 수업의 개선

동료장학이 수업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동료장학이 ‘수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40명 중 34명(100%)이며, ‘훨씬 좋다’고 응답한 교사가 34명(85%)이었다. 이 통계는 전체 교사가 동료장학이 수업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해 준다. 교사가 느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림 3> 수업의 질



<그림 4> 학생 반응

동료장학을 통해 만들어진 수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E교사 : Art+ Day의 비밀은 동학년 협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연천에서 실시하는 Art+ Day의 공개 수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학년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C교사 : 융합교육 수업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묶어 주어야 하고, 수업 방법도 깊은 사고를 해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음악으로 융합교육을 할 때, 관련 지식을 찾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동료장학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E교사는 Art+ Day 수업의 성공요인은 단연 동학년 협의회를 통한 동료장학이라고 말했다. C교사 역시 동학년 협의회가 여러 교과를 융합한 수업 준비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한다. 교사들은 동학년 협의회가 융합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며, 이미 그 효과를 얻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음악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 수업을 할 때, 동료장학은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었을까. 음악과 다른 교과 지식을 융합하는 방법은 다양한 지적 소양이 요구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데, 여러 연령대의 관심이 다양한 교사들이 함께 협의를 함으로써 융합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했다.

C교사 : 처음에 음악 중심으로 융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기본적인 개념을 제안하였고, 그 개념에 따라 음악과 관련 지식들을 분리해 봤더니 노래 가사인 국어와 음악을 만든 사람과 시대와 관련하여 사회, 지리, 역사 등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융합해서 수업으로 만들었더니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협의회에서 거의 기여하지 못했는데, 갈수록 저의 관심이 커져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수업 결과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C교사는 동학년 선생님들과 협의하는 가운데 음악이 융합된 결과물이란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을 수업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는 표면만 생각해 왔지만 내면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융합교육 수업을 위해서 동료장학은 매우 효율적인 과정임을 Y초등학교 교사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2)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의 제작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음악 연주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음악 이론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실기와 이론을 연결하여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사가 이런 능력들을 모두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음악 교과를 전담교사가 가르치거나 국악강사가 지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음악 지도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마저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 A교사의 말이다.

A교사 : 저는 큰 학교만 다녀서 음악 수업을 6년간 한 시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음악에 소질이 없어서 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음악 수업을 안 해 봐서 음악 공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준비를 함께 한다고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교사 : 저는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업이란 것이 완벽한 것이 없으니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한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지도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동학년 협의회를 통해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교사들에게 음악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동료장학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환영받고 있었다. 음악을 어렵게 생각하든 그렇지 않건 간에 음악 수업을 함께 준비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였고, 생각했던 만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러

한 선생님들의 생각은 동료장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3) 수업 능력에 대한 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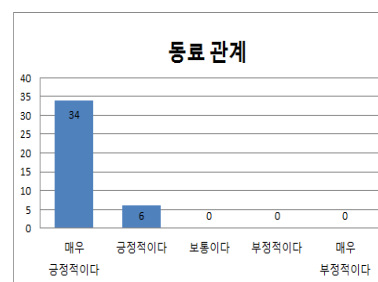
동료장학을 통해 수업을 준비한 교사들은 수업에 대해 새로운 자각이 생겼다고 증언하고 있다.

E교사 : 저희 동학년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나이가 적고, 대부분 55세가 넘어 정년을 가까이 두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선배님들께서 동료장학에 다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좋은 수업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시면서 자신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동학년 모임 대회 주제가 주로 수업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전에는 선생님들이 모이면 가족 이야기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개 수업을 위한 동료장학 과정에서 연령이 높은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준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수업에 대한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여 자존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E교사는 선생님들의 관심사가 일상에서 수업으로 넘어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동료장학을 통해 수업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교사들끼리 더 나은 수업을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모이고, 그것이 교사들 간의 화제를 수업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동료 관계 증진

전체 40명의 교사들은 설문 조사에서 동료장학이 동료 관계를 더 좋게 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4명(90%)이다. 동료장학은 동료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은 동료장학이 동료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었다.



<그림 5> 동료 관계

E교사 : 저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을 교육적으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관점과 지도력 등에 놀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F교사 : 같은 수업을 함께 준비하면서 주제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함을 배웠고, 그것들을 수용하는 방법도 늘었습니다.

B교사 : 하나의 주제로 함께 논의했더니 친밀감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C교사 : 동료장학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두 학기 짝 되니 그 효과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업이나 동료 관계 모두에 효과가 큼니다.

Y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Art+ Day 수업이 교사들에게는 일 년에 두 번 준비해야 하는 공개 수업인데,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실시하는 동료장학이 동료들의 관계 증진에 매우 긍정적이며, 특히 상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동료장학은 교사들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동료장학의 활성화 동인

1) 분명한 목표 설정

동료장학이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장호선, 2004, p. 21).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Y초등학교의 동료장학은 ‘교사 자신이 담당할 공개수업을 위한 준비’라는 단순하며 명료한 목표가 있다.

B교사 : 우리학교의 동료장학에는 저를 비롯해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참여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수업이 한 개인의 수업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업이 공개 수업 및 평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B교사는 자신을 비롯한 선생님들 대부분이 동료장학에 열심히 참여하는 동인을 각자 자신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그 수업은 공개 수업으로 부담이 있고,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Y초등학교의 동료장학은 평가와 연결되는 공개 수업을 준비한다는 명료한 목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철저한 준비

학교의 전체 교사가 열심히 참여하는 동료장학을 운영하는 데는 철저한 준비가 한 몫을 하고 있다.

C교사 : 동료장학은 그것의 내용과 단계를 철저하게 정리해 놓아야 자연스럽게 운영됩니다. 저희 학교는 동료장학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융합교육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 내용들이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C교사는 동료장학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개할 수업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동료장학을 통해 논의할 내용이란 공개 수업할 교과 내용을 의미하는데, Y초등학교에서는 융합교육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 교과 교육과정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과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동료장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주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협의회의 민주적 운영

Y초등학교에서 동료장학이 잘 운영되는 또 다른 동인은 동학년 협의회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학년 협의회에서 구성원의 의견 개진 상황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교사 38명(95%)이 ‘거의 모든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동학년 협의회 의사결정 구조 특징을 묻는 문항에서는 39명(97.5%)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민주주의 구조’라고 응답하였다. 교사 개인의 고유성이 인정되는 개방적인 분위기는 면담조사 응답에서도 나타난다.

E교사 : 동료장학에 참여할 때는 우리 모두가 주체입니다. 동학년 협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교사는 새로운 지도 방법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C교사 : 융합교육 수업을 위해서는 여러 교사들의 교과 관련 지식이 필요한데, 협의회 구성원들이 자신만의 지식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 집니다.

동학년 협의회에 연령이나 관심 분야가 다양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구성원들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운영이 근간에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동료장학의 긍정적 효과의 동인은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협의회의 민주적 운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교장의 리더십

동료장학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에는 학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학교장에게 효과적인 동료장학의 동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학교장 : 동료장학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이 잘 되어야 하며, 교사에 대한 믿음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분장 과정에서 교사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교감 : 교장선생님께서 업무 분장을 한 이후에 크게 불만이 있는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B교사 : 우리 학교는 예측되는 업무분장을 합니다. 사전에 학교의 지향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사의 희망을 받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교사 : 업무분장을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업무를 대체로 예측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학교장은 교사의 업무분장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교장의 업무 분장 결정에 대해 다른 교사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다른 선생님들의 말에서 알 수 있다. 교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업무 분장 절차가 효과적인 동료장학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교장실에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고, 수업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쉽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교사 : 우리는 교장선생님께 쉽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교장선생님께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장과 평교사와의 원활한 관계도 교장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 흔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교사들의 긍정적 마인드

Y초등학교의 동료장학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동인 중에서 또 다른 요인은 구

성원들의 인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도 중요한 동인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이 학교의 정책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지 않으면 동료장학은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 동료장학은 자신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학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각자가 학교 정책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A교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A교사 : 우리 학교는 분위기가 부드럽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학교에 근무했는데, 개성을 뚜렷이 표출하거나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선생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선생님도 없고, 작은 일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말하는 선생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작은 일에는 양보하면서 큰 소리 없이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A교사는 Y초등학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동체 생활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 학교 구성원들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잘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에 대해 교감선생님 역시 유사한 언급을 하고 있다.

교감 :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학교 일에 열심히고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선생님들의 유순한 기본 성향과 학교의 상식적인 운영이 조화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선생님들이 잘 따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감선생님은 선생님들이 학교 일에 잘 따르는 것은 선생님들의 유순한 성향과 함께 학교장의 리더십 덕분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교장의 합리적인 지도력이 선생님들의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고 보고 있다.

Y초등학교 동료장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①학교가 지향하는 바를 전체 교사들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며, ②그것은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때문이고, ③여기에 교장의 지도력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을 위한 동료장학의 효과와 동인을 한 초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동료장학을 효과적

으로 실천하고 있는 Y초등학교 40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일부의 교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Y초등학교의 동료장학을 통해 만들어진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며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료장학으로 만든 두 번의 수업 중 첫 번째에 비해, 두 번째 수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동료장학은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의 개선과 동료 교사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동료장학은 여러 지식을 융합하여 수업을 만들고, 융합교육을 위한 지도법을 고안하는 데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수업 주제를 가지고 협의하는 가운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 동료 교사들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다.

셋째, Y초등학교 동료장학의 성공적 운영의 동인은 1) 동료장학에 대한 명료한 목표 설정, 2) 협의회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 3) 협의회 운영의 민주적 운영, 4) 교장의 리더십, 그리고 5) 교사들의 긍정적인 마인드 등이다.

1) Y초등학교의 동료장학은 전체 학년이 동일한 시간에 실시하는 수업을 준비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운영된다. 동학년 교사 전체는 자신들 각자가 공개할 수업을 동료장학을 통해 준비하게 된다. 따라서 동료장학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하게 된다.

2) Y초등학교는 동료장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다. 한 학년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배치하고, 융합교육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회합이 의미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수업을 준비하는 동학년 협의회는 연령과 관심 분야가 다양한 교사들이 모여 있는데, 회의는 모든 개인이 주체가 되는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이 주요한 일원으로 인정받는 민주적인 운영 방식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4) Y초등학교 동료장학의 성공적 운영의 또 다른 동인은 교장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장은 업무분장을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들과의 관계도 매우 유연하였다. 그리고 학교 전체 행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교장의 리더십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학교 운영을 수월하게 해 주었다.

5) 동료장학의 성공 요인의 마지막은 Y초등학교의 교사 구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긍정적으로 동조하며 따르고 있었다. 이것은 교장의 리더십이 결과일 수 있지만, 수용적인 교사의 품성에도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시작할 때는 동료장학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료장학의 숨어 있는 의미가 점점 드러났다. 동료장학은 학교 사회의 이기적 문화, 독립적 수업 문화 등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한 동료장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Y초등학교의 교사들은 동료장학이 끝난 뒤 일상 수업을 더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교사들 간에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고 한다. 동료장학이 끝난 뒤에도 그 효과는 계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융합인재교육(STEAM) 2011년 성과발표회 자료집. 서울: 저자.
- 권수미 (2012). 예술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음악교육연구, 41(2), 67-100.
- 김민자 (1999). 초등학교 동료장학의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김성원, 정영란, 우애자, 이현주 (2012). 융합인재교육(TEAM)을 위한 이론적 모형의 제언.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2), 388-401.
- 김정환 (2002). **장학론**. 서울: 학지사.
- 김정효 (2012). 지식기반사회에서 융합교육을 위한 간학문적 통합교육의 가능성 탐색. 문화예술교육연구, 7(1), 175-200.
- 김정희 (2012). 융합인재교육(STEAM) 관점에서 미술교과의 공감각 교육에 대한 논의. 미술교육연구총론, 32, 125-144.
- 김종현 (2009). 초등 체육수업 개선을 위한 동료장학의 실천적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남지영 (2013). 초등학교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능성 탐색. 음악교육공학, 17, 63-79.
- 노상우, 안동순 (2012). 학문융합 관점에서 본 현대교육의 이론적-실천적 변화모색. 교육종합연구, 10(1), 67-88.

- 노용 외 (2012). 예술교육 선도학교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박기범 (2012). 스마트 시대의 지식과 융합. 교육사회사, 51(4), 247-257.
- 박현숙 (2011). 수업중심 동료장학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안우환, 권민석, 신재한 (2006). **수업과 장학**. 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 양종모 (2013a). 예술교육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예술교육선도학교 사업단.
- 양종모 (2013b). 음악 교과에서 융합교육의 의미와 실천 방법. 제7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콜로키움&워크숍 자료집, 19-33.
- 유평수, 최은이 (2005). 자율장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분석 연구. 교육종합연구, 3(2), 47-80.
- 이경진, 김경자 (2012). 통합교육과정 접근으로서의 '융합인재교육(STEAM)'의 의미와 실천 가능성 탐색. 초등교육연구, 25(3), 55-81.
- 이윤식 (2007). **교직과 교사**. 서울: 학지사.
- 이지영 (201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청목출판사.
- 장래찬 (2009).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이해**. 서울: 태영출판사.
- 장호선 (2004). 수업연구중심 동료장학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정미경 (2012).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초등 실과 의생활교육 방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3), 217-241.
- 정복이, 신재철 (2010). 초등학교의 수업장학 풍토 연구. 교육종합연구, 8(3), 65-85.
- 정혜림, 허병기 (2009). 초등학교 교내자율장학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7(1), 433-456.
- 조대현 (2013). 음악 중심 융합교육과 이를 위한 전제조건. 음악과 민족, 46, 267-289.
- 주삼환 (2009). **장학의 이론과 실제(I. 이론편)**.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진동섭, 이윤식, 김재웅 (2007).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채현경 외 (2012). 예술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장학론**. 서울: 하우.
- 홍병선 (2011). 융합교육을 통한 기초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양논총, 4, 140-161.

- Beach, D. M., & Reinhartz, J. (2000). *Supervisory Leadership: focus on instruction*. Boston: Allyn & Bacon.
- Alfonso, Robert J., Firth, Gerald R., and Nevile, Richard F. (1981). *Instructional Supervision: A Behavior System, 2nd ed*. Boston: Allyn & Bacon.
- Harris, Ben (1985). *Supervisory Behavior in Education, 3rd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 Wiles, Kimball, and Lovell, John T. (1975). *Supervision for Better School, 4th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Peer Supervision for Music-centered Convergence Instruc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Y Elementary School in Busan -

Yang, Jong-mo · Nam, J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and causes of peer supervision for music-centered convergence instruction through the case of an elementary school.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in 40 homeroom teachers and 8 teachers were interviewed in Y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drew these conclusions: first, students and parents think highly of the instruction by peer supervision in Y Elementary School, and teachers a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own instruction. Second, the effects of peer supervision are particularly remarkable in improved music-centered convergence instruction and enhanced relationships among peer teachers. Third, the causes of effective peer supervision can include clear goal-setting for peer supervision, thorough preparation, democratic operation of conferences, principals' leadership, and teachers' positive thinking.

key words : music education, convergence education, peer supervision

투고일: 2013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4년 1월 3일(1월 15일), 게재확정일: 2월 2일